

스웨덴 잡아야 16강 보인다…유럽 마스터 나서는 신태용호

신태용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됐다



지구촌 최고의 축구 축제 2018러시아월드컵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최국 러시아를 비롯해 각 대륙별 예선을 통과한 32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월드컵은 6월 14일 개막해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한국은 독일, 멕시코, 스웨덴 등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F조에 속해 조별리그를 치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2010남아공월드컵 이후 8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F조에서 격전을 펼칠 4개국의 월드컵 준비 과정과 함께 이번 월드컵에서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축구 스타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3월 북아일랜드·폴란드 원정…스웨덴 겨냥
축구현, 전세기 동원·원정응원단 동행 지원

5월 중순 다시 소집…국내서 A매치 출정식
오스트리아서 마지막 담금질…평가전 예정



▶ 전 세계 축구팬들이 손꼽아 기다린 2018러시아월드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렵사리 러시아로 향한 한국축구도 하나둘 준비를 마쳐야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태극전사 체코와 현지 베이스캠프 점검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던 신태용 감독도 6일 귀국해 본격적인 월드컵 체제에 들어간다. 스포츠동아DB

태극전사 체코와 러시아월드컵 베이스캠프(상트페테르부르크) 점검, 사전 훈련캠프 확인을 위해 유럽 출장을 떠난 축구국가대표팀 신태용(48) 감독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사령탑의 복귀에 맞춰 대표팀은 이제 마지막 준비에 나선다. 신 감독은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아일랜드(24일 오후 11시·한국시간)~폴란드(28일 오전 3시45분)로 이어질 A매치 유럽 원정 2연전에 출격할 대표팀 엔트리를 발표한다.

비상사국인 만큼 대한축구협회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격전지인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와 폴란드 호주프를 잇는 직항 노선이 없는 이유로 전세기를 띄우기로 결정했다. 촉박한 일정에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태극전사들의 피로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원정 응원단도 동행해 선수단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3월 유럽 원정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월드컵 개막이 임박한 시점이라 큰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상이나 갑작스런 컨디션 난조 등 돌발변수가 아닌 이상, 3월 평가전 시리즈에 출격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러시아행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선수단 구성과 함께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활용할 전략과 전술도 확인한다. 북아일랜드와 폴란드는 우리가 러시아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맞설 스웨덴, 독일을 겨냥한 스파링파트너로 강호들에 대한 내용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당대 최강’으로 군림해온 독일은 상대하기 어렵더라도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날 스웨덴은

대표팀이 16강 토너먼트 라운드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다.

물론 협회도 함께 된다.

3월 상대국들의 A매치 현장에 분석전담요원들이 파견된다. 적의 최근 동향을 살피는 작업은 대표팀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듯 역량을 총동원해 확보될 자료들은 향후 대표팀 코칭스태프에게 전달된다.

이후 대표팀은 5월 중순 다시 소집된다. 시기는 K리그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를 구해 5월 21일로 잠정 결정됐다.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짧은 강화훈련을 갖고, 5월 말이나 6월 초 최소 1회 이상 A매치를 국내에서 갖는다. 장소는 무난한 선수단 이동을 위해 수도권이 유력한데, 월드컵 출정식도 겸해 진행된다.

대표팀은 이어 오스트리아로 떠나 약 열흘 가량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한다.

여기서도 1회 이상 A매치를 갖는다. 당초 협회는 2010남아공월드컵 직전 대표팀이 사전 캠프로 활용했던 인스부르크 인근의 노이슈티프트를 염두에 뒀으나 이 지역을 원하는 국가들이 일찌감치 선점하면서 장소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6월 12~13일 무렵,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해 여장을 풀고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한다.

주요 격전지인 니즈니노브고로드(스웨덴전)~로스토프나도노(멕시코전)~카잔(독일전)으로는 국제축구연맹(FIFA) 대회 규정에 의거해 킥오프 이틀 전 이동한다.

월드컵 기간 32개 출전국들은 전부 FIFA와 대회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직항 전세기를 활용한다.

남정형 기자 yoshike3@donga.com

‘동상이몽’ 스웨덴·멕시코…‘유비무환’ 독일

한국 상대 F조 3개국 월드컵 준비 상황

스웨덴, 멕시코 의식 페루·칠레와 평가전
멕시코도 유럽팀들과 잇따라 A매치 격돌
독일은 한국전 염두? 사우디 상대 출정식

한국이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만날 F조 3개국도 본선 무대까지의 ‘로드맵’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다. 한국의 1차전 상대인 스웨덴과 2·3차전 상대인 멕시코·독일 순으로 경쟁국의 월드컵 준비 과정을 점검해본다.

●스웨덴

한국은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스웨덴과 격돌한 적이 없다. A매치만 4차례 치렀고, 한국이 2무2패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스웨덴은 오는 3월 25일(한국시간) 칠레, 28일 루마니아와 평가전을 갖는다. 루마니아와의 경기는 원정이다. 월드컵 본선 직전에도 두 차례 A매치를 확정해 놓았다. 모두 자국에서 열리며 6월

3일 덴마크, 9일 페루와 격돌한다.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남미 팀과 두 번의 평가전을 갖는 것으로 보아 멕시코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뒤 스웨덴은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켈렌지크로 향한다. 켈렌지크는 흑해 연안의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한국은 멕시코와 자주 만났다. A대표팀 뿐 아니라 올림픽 대표팀 등이 각급 FIFA 주관 대회에서 수차례 격돌했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 같은 조에 속했고, 한국이 선제골을 넣고 1-3으로 역전패 했다. A매치 상대전적은 4승2무6패로 뒤져있다. 멕시코는 미국에서 평가전을 세 차례 예정해 놓았다. 3월 24일 아일랜드, 28일 크로아티아와 미국에서 격돌한다. 5월 29일에도 미국에서 웨일스와 A매치를 잡아 놓았다. 그런 뒤 멕시코로 이동해 6월 3일 스코틀랜드와 출정식을 겸한 친선 경기를 치른다. 다시 유럽으로 장소를 옮겨 6월

19일 덴마크와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그들의 베이스캠프는 러시아 힘키로 모스크바 인근 도시다.

●독일

한국은 독일과 역대 월드컵에서 두 번 격돌했다. 1994년 미국대회 조별리그에서 2-3으로 졌고, 2002년 한·일 대회 준결승전에서도 0-1로 패했다. 역대 A매치 전적은 1승2패다. 1승은 2014년 12월 국내에서 열렸던 친선경기였다. 세계 최강 독일은 3월 평가전에서 월드컵 우승 후보들을 연이어 상대한다. 3월 24일 스페인, 28일 브라질과 격돌한다. 모두 홈경기다. 6월 3일에는 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경기장이 펼쳐지는 곳은 오스트리아다. 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월드컵 본선을 앞둔 1차 훈련을 진행한다. 그런 뒤 독일로 돌아와 9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출정식을 겸한 친선경기를 한다. 다른 팀들이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평가전을 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독일의 베이스캠프는 모스크바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호날두·메시, 월드컵 트로피 품에 안을 자는?

러시아월드컵서 주목할 스타들

월드컵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슈퍼스타들의 ‘축구쇼’가 펼쳐지는 무대다. 2018러시아월드컵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스타들이 축구팬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스타는 단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레알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31·FC 바르셀로나)다. 약10년 간 라이벌 구도를 그려오고 있는 이들은 각종 개인상을 휩쓸고 각자 소속팀에서 우승도 맛봤지만, 월드컵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했다. 호날두의 경우, 지난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에서 포르투갈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자국 대표팀에게 한 차례 우승트로피를 안긴 경험이 있다.

그러나 메시는 유독 대표팀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는 2016년 남미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칠레에게 패한 뒤 엄청난 실망감에 빠져 국가대표 은퇴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대표팀 복귀를 선언했다.

어느덧 호날두와 메시는 30대 베테랑 선수가

됐다. 이번이 둘에게는 전성기 기량으로 맞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전망이다. 월드컵 우승 여부는 오랜 기간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온 이들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요소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의 간판스타 네이마르 다 실바(26·파리생제르맹)도 주목해볼만하다. 그는 최근 오른 발 중족골부상으로 수술을 받아 개점휴업 중이지만, 월드컵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일찌감치 호날두·메시를 이을 최고의 축구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네이마르는 월드컵 활약 여부에 따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밖에도 벨기에의 에당 아자르(27·첼시), 폴란드의 로베르트 레만도프스키(30·바이에른 뮌헨),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25·토트넘), 프랑스의 앙투안 그리즈만(27·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한국의 손흥민(26·토트넘)도 이번 월드컵이 ‘월드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월드컵에서 손흥민의 활약상은 본선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조지아 관광청 With

코카서스 3국 10일 여행

코카서스 원정대 출발!

4월 26일 **초특가** 329만원

선착순 20명 조지아 크베브리 와인 증정!

문의전화: 1800-1454 웹사이트: www.caucasustour.k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코카서스 전문여행사